

삶의 힘이 자라는

2019 겨울 제19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우리인천교육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소통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학생자치회! 살릴 수 있다

마을과 함께 희망을 준비하는
인천마곡초 숲 체험 캠프

교육연극, 들어보셨어요?
상상의 힘을 믿자!

사랑의 김장 나누기



Cover story



꿈을 채우는 아이들
그림 _ 서유승 인천해원초 교사

삶의 힘이 자라는
2019 겨울 제19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agazine
우리인천교육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기획 및 편집 박동규, 정은희, 정영찬
사진 이주한, 서주희, 이예슬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화 032-420-8122
홈페이지 www.ice.go.kr
디자인·인쇄 우성기획인쇄(T. 032-888-8856)



특집 + 인천교육을 말하다

- 04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소통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 10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토론회'
학생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교복에 대해 듣다



학교돌보기 +

- 14 학생자치회! 살릴 수 있다.
- 16 마을과 함께 희망을 준비하는
인천마곡초 숲 체험 캠프
- 18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 20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찾기
벽화 제작 프로젝트
- 22 놀이로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반



공감 +

- 24 와글와글 우리반
- 26 웹툰으로 보는 인천교육
- 30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관
비주얼씽킹
- 32 교육연극, 들어보셨어요?
상상의 힘을 믿자!

캠페인 +

- 36 청소년노동인권상담 연재 [3]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청소년 노동상담
- 38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정보 +

- 40 신나는 우리, 행복한 누리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 42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천미래교육
- 44 의회소식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 46 2019 인천교육
'꿈을 그리다' 웹툰 공모 우수작
- 47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행



◀ 인천교육소식지 바로보기

독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인천교육소식(jeh3343@ice.go.kr)”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기사,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 소식지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 제2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 광장토론회, 소통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차건호 정책기획과 장학사



‘우리가 교육감이다’라는 주제로 제2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가 시교육청 소통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도 72개 시민제안사항이 2019년도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이 되었듯이 올해도 많은 인천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였습니

- 주제 우리가 교육감이다
- 대상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토론 1부 인천교육정책에 대해 주제별 토론
2부 교육감과의 대화 및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 일시 9월 18일(수) 16시~
- 장소 인천시교육청 소통광장
- 주최 인천시교육청



1주일 전에 본토론 의제를 정하는 사전토론회에는 11개 분과, 8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95개의 토론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18일(수) 16시에 제2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가 소통광장에서 시작되었고 시민들은 81개의 의제를 토론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바람을 나누는 뜨거운 열정이 중회의실을 후끈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4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솔직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소통광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현장의 공감을 얻어내는 인천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81개의 의제를 토론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바람을 나누는 뜨거운 열정이
중회의실이 후끈하게 만들 정도였다.



시대는 다르지만,
서재필 박사가 중심이 된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와
인천교육광장토론회가
묘하게 오버랩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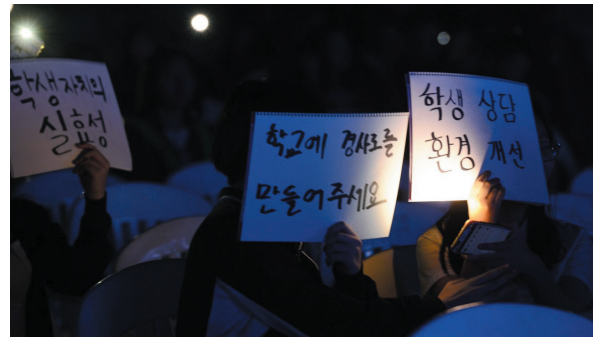
300만 시민 교육감의 ‘꿈꾸던 그날이 오면’

조한성 인천봉화초등학교 교사

‘우리가 교육감이다’라는 주제로 제2회 교육감과 함께하는 인천교육광장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00만 시민 교육감의 ‘꿈꾸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부제가 광장토론회를 준비하는 동안 마음 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서재필 박사가 중심이 된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와 인천교육광장토론회가 묘하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당시와 오늘날의 국제 정세, 시민·단체회원·정부 관료 등이 참여하여 자주성과 국정 개혁을 요구한 시대정신이 120여년이 지난 광장토론회에서 인천교육 주체들 간의 소통·공감·참여·협력의 시대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부 정책토론에서 민주적 학교문화 분과의 토론촉진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광장토론회에 참석한 모두가 ‘너도 교육감이나!’, ‘나도 교육감이다!’, ‘우리가 교육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시간의 정책토론이 너무 짧다고 여겨질 정도로 치열하게 소통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밝게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소통·공감·참여·협력의 자리였습니다.

2부 ‘꿈꾸던 그날이 오면’ 교육감과 대화에서는 120여 년 전 그날처럼 인천시민들의 교육적 염원을 담아 인천교육청 소통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즐기면서 축하 공연을 하던 학생들과 스케치북을 이용한 질문을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천시민들의 뜨거운 교육적 요구와 제안들에 대하여 차분하지만 따뜻하게 소통하시는 교육감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2회 광장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작은 날개짓이 인천교육정책이라는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20년 교사 경력의 색다르지만 좋은 추억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참가소감문

소통과 공감의 장이 더욱 확대되고 확산해야 한다.

옥효정 학부모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광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내 의견이 정말 정책으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구심 반 호기심 반으로 토론회에 참가했다. 나는 11개 분과 중 평화교육 분과에 참여했다. 특별히 평화교육 분과를 택한 것은 교육은 곧 평화라는 생각에서였다. 평화는 교육의 출발점이자 과정이고 종착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분과에는 학생 한 명과 학부모 두 명,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여러 명이 함께했다. 평화에 대한 이해 기준이 달라서 교실의 평화에서부터 평화통일, 궁극적인 평화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의견들을 몇 개의 주제로 묶어 의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사전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토론회에서 합의한 평화교육 의제를 바탕으로 학생 관점과 학부모 관점, 그리고 교사 관점으로 정책

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평화교육 정책을 원했고 학부모는 자녀와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평화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교사들은 교사들을 위한 평화교육과 평화교육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될 수 있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우리가 제안한 정책이 받아들여질지 이대로 사장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인천의 교육을 위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말하고 정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감사한다. 이런 자리가 바로 평화이고 인천교육이 지향하는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광장토론회는 올해로 두 번째라고 한다. ‘우리가 교육감이다’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통과 공감의 장이 더욱 확대되고 확산해야 한다. 인천교육을 응원한다.



교육권의 보장을 통한 교권 향상 필요

설해빈 인천해원고등학교 2학년

지난 9월 18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최의 광장토론회에 참석했다. 작년에도 열렸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처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원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에 관심이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고2가 되면서부터였다. 고1 때는 몰랐던 부족한 교육제도나 학교의 부분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점점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욕구는 커져 갔지만 어디서 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접하게 된 것이 올해 진행되었던 청소년 100인 정책토론회와 광장토론회였다. 평소 민주적 학교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주제로 정말 의견을 나뉘보고 싶었다. 그 중에서도 교육권의 보장을 통한 교권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악용해 선생님께 함부로 대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을 불가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화제 되고있다.



학생 인권 신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이유로 교권의 하락이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 더불어 왜 학생 인권이 향상되면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교권이 향상하면 학생 인권이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서로 상생하며 두 부분 다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을텐데 한쪽을 꺾어내리면서 향상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답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의 생각을 1부 정책토론회에서 말했고, 2부 만민공동회에서 1부에서 민주적 학교문화의 토론을 이끌어주셨던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또 광장의 모인 인천시민들의 학교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유치원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장소가 마련된 점이 너무나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진솔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가 더욱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인천교육의 힘, 광장토론회’

이세민 문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광장토론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서 찾을 수 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당대 주요 정치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광장토론회에서 나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고민되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교대 진학을 꿈꾸는 나로서는 인천교육 정책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교사가 꿈인 내가 인천교육에 바라는 점은 이렇다. 언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들 수 있다. 학생 인권 침해가 불거지며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그 뒤에 자리 잡은 교권은 어떠한가? 학생 인권은 강조되는 반면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하기만 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교육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교권침해의 피해는 당장은 교사만의 문제로만 보이겠지만 결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에만 전념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가르치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천 교육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권이란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선순위를 가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권은 교사들이 누리는 권력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보장 받아야 할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사인권과 교육활동,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인천 교육에 도래한다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공론장

박영대 올마이키즈 상임이사

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1) 무엇을 이야기할 것 인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합의 내용은 반드시 제도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할 것을 정하고, 그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시늉’ 민주주의이고, 합의를 제도에 반영해 실행하지 않으면 ‘헛바퀴’ 민주주의이며, 참여자들이 다시는 그 논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는 사전토론회를 통해 토론주제를 뽑아내고, 광장토론회 당일에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이니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구나 하는 믿음이 갔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점은, 토론주제를 뽑아낼 때 사전토론회를 통해 토론회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인천 교육 가족의 생각을 좀 더 폭넓게 들었으면 한다. 시간을 내서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시민,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천교육 광장토론회가 인천 교육의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 폭넓은 시민과 청소년 참여를 위해 좀 더 공들였으면 한다.

참된 민주시민 교육은 학습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근사한 경험과 체화의 공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교복에 대해 듣다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토론회’

●
조일욱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우리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국 최초로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매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하였다. 무상교복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던 중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기존의 정장형태 교복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른바 편안한 교복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토론회’를 열어

교복을 직접 착용하는 학생들이 입고 싶은 교복은 어떤 교복일지 고민하던 중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토론회’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원활한 토의토론을 위하여 참가 희망 학생으로부터 편안한 교복에 관한 사전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설문 조사에서 기존 정장 형태의 교복이 ‘편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불과한 반면, ‘불편하다’는 의견은 53.9%였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편안한 교복이란?’ 질문에 ‘기존 교복을 개선하거나 생활복을 착용하자’는 의견이 60.8%, ‘교복 자율화(사복 착용)’에 답한 비율은 29.4%로 다수의 학생들이 기존 교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편안한 교복의 요소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66.7%, ‘넉넉한 사이즈’가 61.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운동과 공부 가 모두 가능한 옷’ 54.9%, ‘보온성과 통기성’ 47.1%, ‘성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 45.1%, ‘저렴하면서 실용적인 옷’ 40.2%,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옷’ 39.2% 등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에 비해 ‘마찰에 강한 내구성’, ‘개성적인 요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옷’, 등의 의견은 비교적 10%대 소수 의견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학생들은 ‘개성의 표현’, ‘내구성’, ‘소속감’보다는 ‘실용성’, ‘활동성’, ‘탈성역할고정성’ 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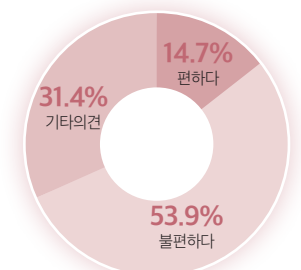
교복을 직접 착용하는 학생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토의토론회를 통해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존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려면 관련 규정(각 학교별 교복 규정)을 제·개정하는 절차와 학교가 입찰 과정을 통해 교복제작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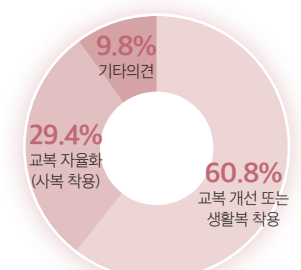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가 교복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교복을 직접 착용하는 학생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학교 구성원이 편안한 교복을 희망한다면 기존 교복의 디자인과 소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기존 교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존 정장 형태 교복의 편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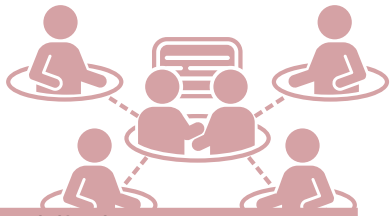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교복은?



아무쪼록 이번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토론을 계기로 우리인천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편안한 교복이 각 학교에 확산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삶의 힘을 기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편안한 교복에 대해서 말하다’ 토의토론회에 총 94명의 중·고등학생과 5명의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과 함께 ‘월드카페’ 형식으로 열띤 이야기를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의토론 결과

주제	불편한 점	바라는 점
기존 교복에 관련 일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복착용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함• 셔츠나 하의(바지 및 치마)의 재질이 거칠고 신축성이 떨어짐• 정장 형태 교복의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가 있음 (넥타이, 리본타이, 조끼, 셔츠, 블라우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복착용에 관한 규정 완화가 필요함• 신축성과 통풍성, 보온성, 유연성을 갖춘 원단을 사용하기• 노타이 또는 불필요한 디자인은 모두 제거하기• 자켓 대신 후드티셔츠나 야구점퍼 형태 편안한 상의로 개선하기• 하의 생활복(편안한 재질) 제작하기
교복의 성차별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학생용 자켓은 길이가 긴 것에 비해 여학생용은 짧아 활동성이 떨어짐• ‘슬림한 프린세스 라인’의 여학생 교복이 ‘여성은 날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도록 하여 불편함• 남학생용 넥타이는 일자형인데 비해 여학생용은 리본 형태임 (남학생용은 리본 형태가 없고 여학생용 일자형이 거의 없음)• 성별에 따라 색상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음 (남학생은 청남색 계열, 여학생 분홍 및 자주색 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여성용 교복의 품을 넉넉하게 하고 교복 길이를 조금 늘려서 활동성을 높이면서 몸매를 강조하지 않게 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남성·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넥타이 종류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성별에 따른 색상 차이를 두지 않기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복 디자인이나 소재 변경 시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이 매우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복 디자인이나 소재 변경 시 학생 의견 반영 비율 상향조정 하기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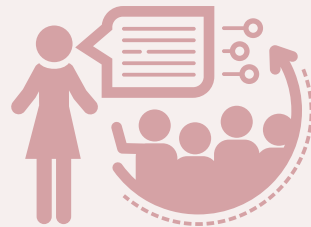
나성수 갈산중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이번 편안한 교복에 관한 토의토론회를 통해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편안한 교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학교별 실태를 공유함으로써 각 학교별 교복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올해 학생회장 자격으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복선정위원회 내 학생위원이 필수로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을 적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수 산곡남중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산곡남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손민수입니다.

2019 편안한 교복 학생 토의토론회를 통해 각 학교의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던 좋은 경험이 되었고, 또 우리와는 멀게만 느껴졌던 교육청에 우리의 의견을 직접 말하고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자치가 활발해져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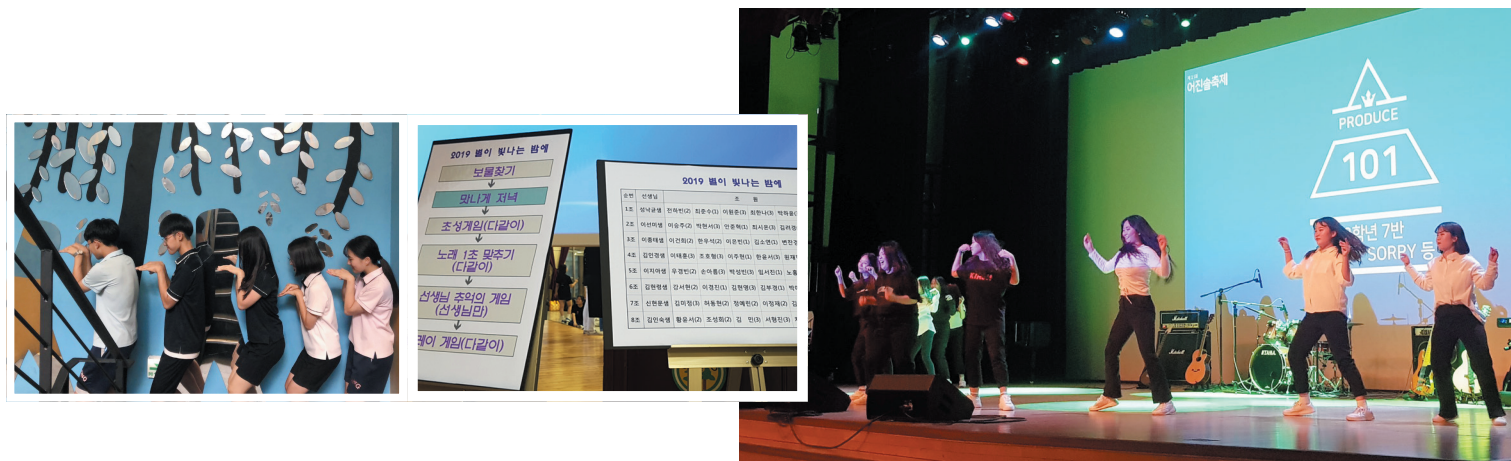


학생자치회! 살릴 수 있다.

● 김인경 인송중학교 교사

민주시민교육부? 그 낯선 부서의 시작

부서개편이 있었다. ‘민주시민교육부’를 새로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에 그리고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긴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이해하고도 남았다. 선진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민주 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호기로운 교육적 의지에 동의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당장, 그 부서의 담당부장으로 ‘어떻게(How)’가 문제였다. ‘시행착오’, ‘좌충우돌’은 예상 시나리오에 미리 담아 놓고, 학생자치회를 살려 민주시민교육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았다.



일단, 학생자치회 구성이 문제였다. 활동이 미비했던 학생자치회가 살아나려면 뜻을 함께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모임이어야 했다. 학급 회장단을 구성하기 이전에 학년별 모임을 주관했다. 학년별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학생자치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학급 반장, 학급 부반장 임원선거에 도전해 보라고 독려하는 학년다모임을 3월초 각각 3회 진행하였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리더십, 전체를 살피는 포용력, 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성을 추구하는 학생자치회의 새로운 철학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 학교의 상황, 선생님들의 고민 등을 학생자치회와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수시로 가졌다. 이러한 대화와 토론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건설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다듬어 나갔다.



학생자치회! 이렇게 해 낼 수 있다

01 슬리퍼 대여사업으로 학생자치회를 시작

먼저, 학생자치회의 데뷔무대를 가졌다. 학생자치회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1년간 진행할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학생자치회 운영방법을 공유하는 데뷔 무대를 가졌다. 학생자치회 구성원들조차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었다. 끊임없이 칭찬하고, 사소한 장점을 발견해 주는 과정 속에 학생들은 소통에 자신감을 얻었고, 이 힘을 빌어 ‘학생회가 주관하는 슬리퍼 대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8개의 슬리퍼를 학생들에게 대여했고 현재까지 그 8개의 슬리퍼가 분실되지 않고 여전히 애용되는 있는 점은 성공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02 사제동행 1박 2일 교내 리더십 캠프를 운영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외부 여행을 통한 리더십 캠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먼저 모집하였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참여는 동력으로 작동하였고, 교사와 학생을 최소 인원으로 모두 구성하여 긴밀한 래포형성을 꾀했다. 텐트가 학교에 펼쳐지고, 교장선생님의 야간 조명등 설치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학생자치회 주관 사제동행 캠프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학생자치회는 머리를 모아 ‘초성게임’, ‘모듬별 음식 만들기 경연’, ‘노래 1초 듣고 맞추기’, ‘보물찾기’등 다양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03 ‘인송을 세계에 알리다: 인사동 프로젝트’에도 도전!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인사동 프로젝트’를 학생자치회와 함께 경험하며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다. 영어미션지를 미리 제작하고, 모듬별로 인사동 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영어실력이 다소 부족해도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며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영어라는 도구는 단지 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성이 합해지면 누구와도 의사소통가능하다는 경험은 경쟁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영어 교실학습이 제공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신감 부스터’ 역할을 했을 것이다.

04 ‘FILA’학생 동영상 공모전에 참여

우리 학교 전교학생회장은 동영상 제작에 많은 재능을 가진 학생이었다. 신발제작회사로 유명한 FILA에서 주관하는 학생 대상 동영상 공모전에 학생회장은 참여의사를 표현했고, 직접 시나리오 제작에 나섰다. 교장선생님이 동반 출연하면 가산점이 있다는 말에 적극 교장선생님을 동영상작품에 출연 섭외했고, 작품을 완성했다. 아쉽게도 상위권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촬영하는 동안 함께 웃고, 함께 편집하는 과정은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FILA에서는 우리 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FILA 양말을, 동영상 출연진에게는 FILA 티셔츠를 선물로 제공하여 모두 함박웃음을 지었다.

05 인송 어진솔 축제 학생자치회를 꽃을 피우다

10월 14일! 인송 어진솔 축제 제일이었다. 그동안 학생자치회가 쌓은 경험치를 근력삼아 인송 어진솔 축제를 계획했다. 춤과 노래는 물론 관객인 학생들을 그저 시청자수준에 머물게 하지 말자는 취지로 ‘Kahoo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복면가왕’ 진행 후 모두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학생자치회가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들은 ‘공익광고’로 제작하여 꿈과 끼를 발산하는 무대들 사이사이에 넣었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2020 학년도 학생회장! 너도 할 수 있어!’, ‘축제 에필로그 영상’으로 여느 축제에서 맛볼 수 없는 성찰의 메시지를 선사했다. 핸드폰 플래시로 관객들은 뜨거운 화답의 메시지를 보냈다. 거듭된 도전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경험들이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인송만의 색깔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마을과 함께 희망을 준비하는 인천마곡초 숲 체험 캠프

유정선 인천마곡초등학교 교감



가을빛을 품은 가을 하늘 아래 아이들 웃음소리가 자욱하다.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놀이마마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원적산에 모여 지역연계 봉사 단체인 소서노 전통놀이 연구단과 함께 숲 놀이 캠프를 준비하였다. 숲 속의 아침 공기를 맞으며 회원들은 밧줄 놀이를 즐길 아이들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그리며 행복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동안 연수와 실천 때문인지 숲 그네, 외줄타기, 무지개 해먹, 회전목마 그네, 버마다리, 짚 라인, 거미줄 정글짐 등의 놀이터가 거침없이 완성되어 갔다.

기성 세대의 놀이 문화를
아이들도 즐기길 바라는
마음 속 작은 놀이터이기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 5회
숲 놀이 체험 캠프



제5회 짚을 맞은 숲 놀이 체험 캠프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적산 공원에 함께 모여 숲 생태 포토존 꾸미기, 숲 마을 놀이, 숲 밧줄 놀이 등 세 개의 코스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어디서 누구와 만나 어떤 방법으로 놀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요즈음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마을의 배려이다. 끼니를 거르면서 동네 구석 구석을 뛰놀았던 기성 세대의 놀이 문화를 아이들도 즐기길 바라는 마음 속 작은 놀이터이기도 하다.

이런 바람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마곡초 학부모 동아리 놀이마마회는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점심시간에 전통 전래 놀이, 창의 놀이, 다문화 놀이, 숲 밧줄 놀이, 놀잇감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놀이는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성세대들이 잊고 지낸 기억을 소환하여 너무 늦지 않게 이 기억을 아이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놀이마마회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놀이를 배우고 익히고 있으며 지역사회 놀이 봉사 단체와 함께 각 학교에서 진행되는 놀이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에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놀이마마회 회장 박수옥은 '놀이 마마&놀이파파의 최종 목표가 학생들 스스로 놀이의 주체가 되어 놀이 속에 숨겨진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가르침을 배우고 느끼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행복했던 기억이 버팀목이 되어 학생들이 단단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학생의 미래를 학원에서의 시간에만 의존하는 학부모님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곡초등학교는 생활 속 놀이를 교육과정 속에 펼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규칙을 터득하고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숲 놀이 캠프로 인해 실컷 맘껏 함께 느끼고 뛰어놀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해준 놀이마마 & 놀이파파, 전통놀이 소서노 놀이 연구단, 학생봉사동아리 그리고 마곡초등학교 교육 가족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 우리

●
최은성 내가초등학교 교사

내가초등학교의 ‘에코스쿨’은

내가초등학교의 ‘에코스쿨’은 자연환경 및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계절학교의 이름입니다. 에코스쿨의 에코란 환경을 뜻하는 ECO와 메아리를 뜻하는 ECHO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 특성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아이들의 활동을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학교는 고려저수지를 품고 있는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계절학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의 계절학교가 운영되고, 계절의 특성에 맞는 활동들이 계획됩니다.

가을 에코스쿨 -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10월 21(월)~ 25(금) 5일간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라는 주제로 가을 에코스쿨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을 에코스쿨의 첫 시작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ECO 스쿨을 시작하며 협의과정을 통해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21일(월)~23일(수)에 5, 6학년은 ‘서울 역사문화 테마형 체험학습’이라는 주제로 수학여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유적지 및 사회 문화 시설을 관람하고 도시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역사의를 고취시키고 도시 문화의 생활모습과 자연환경 등을 체험하며 다양성의 이해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1일(월)에 1~4학년은 오전 시간에 MOU 체결교인 인천석남서초 학생들과 함께 지난 봄 심은 고구마를 수확해 보는 활동을 통해 노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환경 그림책을 소재로 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렸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주는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22일(화)~23(수)까지는 1~4학년 학생들의 서울 생태체험학습 기간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자연 환경 및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시설 관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관광 자원 체험, 공연 관람 등 1박 2일 동안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심미적 감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4일(목) 오전 시간에는 하점지구 작은학교 두레교육과정에 소속된 내가초등학교, 하점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학생 120여 명이 함

께 강화 교동도 평화나들길 코스를 걸으며 교동도의 자연 환경을 느껴봄과 동시에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교동이 미래 통일의 중심이 될 날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시간에는 1년 농사의 마무리인 가을걷이가 용두레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모내기 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 농사의 마무리를 통해, 함께하는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부들의 땀과 흙의 소중함도 일깨웠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25일(금) 오전시간에는 내가 저수지 주변을 따라 자전거 하이킹을 하며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 교직원들이 맛있게 고구마를 구워 주고, 하이킹 후 맛있게 고구마를 먹기도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가을ECO 스쿨을 마치며 프로젝트 활동에 따른 모둠별 활동 결과 및 소감을 발표해보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찾기 벽화 제작 프로젝트

박이슬 학교생활교육과 전문상담교사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이 행복을 즐기며 나의 삶에 만족을, 나에 대한 사랑을 키우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 벽화 제작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자존감이 자라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자존감이 자라나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실천기를 희망하며...

관내 고등학교 10 개교를 지원한 이 사업은, 학생들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신들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행복수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이러한 순간이 담긴 그림을 나무판에 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인정하는 나눔의



시간도 가짐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렇게 그린 학생들의 행복한 순간은,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벽화로 제작됩니다. 벽화 제작 전문가가 그린 벽화에 나무판을 걸어, 학생들의 행복한 순간을 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 수업과 행복한 순간이 담긴 나무판, 이의 배경이 되는 벽화까지 어우러져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벽화를 제작하여 학교 환경에 변화를 줌으로써 교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생명존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들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였길 바랍니다.

놀로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반

‘선생님, 오늘은 뭐 하고 놀아요?’

학기초부터 놀이를 학급경영과 수업에 적용하다보니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이들이 물어본다. 그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묻어 나온다.

● 유철민 인천산곡북초등학교 교사



“오늘은 수학 수업을 할 때, 놀이를 활용해서 할 거야. 그리고 도덕 수업 시간에는 마음을 전달하는 놀이를 할 거야. 아참, 오늘 자리 바꾸는 날이니까 놀이를 이용해서 우리 자리를 바꿔보자.”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아이들은 마치 맛있는 식사를 한 표정처럼 만족감을 드러내며 자리에 돌아간다.

이렇게 학급경영과 수업에 놀이를 적용하는 것은 나의 교직 경력과 비례하여 벌써 10년도 넘는 일이다. ‘놀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적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대부분 수업과 학급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급 분위기가 항상 활기차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생기있는 교실을 만들어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놀이를 이용하여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그건 유 선생님이 유머러스하고 놀이를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솔직히 교사의 성격과 그리고 진행 능력이 아주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공 하나만 있어도 잘 놀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함께 하는 놀이라면 단순한 가위바위보만 해도 좋아한다. 이것이 놀이가 가지는 힘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교사의 진행하는 능력보다는 언제 놀이를 할 것인가 미리 염두해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반에서 법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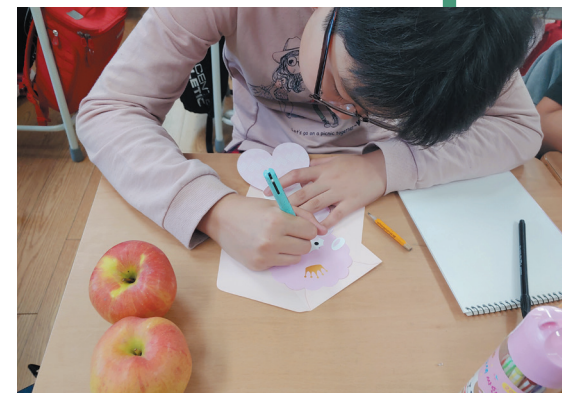
학교 생활과 연결지어 시뮬레이션 놀이를 수업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소감을 들어보고 나서 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렇듯 놀이는 수업과 연결지를 때, 배운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경험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의 방식은 학생들에게 내면화하기 용이하다. 모든 내용을 다 놀이로 설정하여 할 수는 없지만, 교사의 이러한 노력은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놀이수업은 뿐만 아니라 학급경영에도 효과적이다. 놀이의 기본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놀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칭찬 가위바위보’라는 놀이가 있다. 미니북을 만들어서 교실을 돌아다니다 만나는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한다. 가위바위보에 진 친구는 이긴 친구의 미니북에 그 친구에 대한 칭찬을 적어준다. 단, 칭찬을 받은 친구는 놀이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미니북에 적힌 칭찬을 읽을 수 없다. 충분한 시간동안 놀이를 한 후, 미니북의 내용을 보지 않고 교사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미니북을 읽고, 학생들은 칭찬만 듣고 누구인지 추리해본다. 아주 간단한 활동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친구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놀이 활동은 학급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행복한 학급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앞으로의 사회는 혼자서만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놀이는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배우고, 배려와 소통을 배울 수 있다.

놀이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학급을 만들어가고, 교사와 학생 간의,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말하고 싶다. 놀이의 종류와 방법은 다양하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아이들과 한 번 같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반

글 강윤민 서울수명초등학교 교사
그림 정다운 인천석천초등학교 교사

급식 1



급식 2



급화해



카운트



당당하게 다같이 텐원 하더라 너네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관 VISUAL THINKING

김차명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미디어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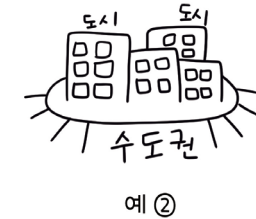
요즘은 한마디로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입니다. 텍스트 중심의 시대에서 태어났던 기존 세대와는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공부를 할 때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익숙한 방법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사용한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글자나 숫자를 가르칠 때 커다란 그림카드를 보여주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평소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개념이라도 그림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되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활용하면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장기기억 형성은 물론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복잡한 내용을 정리할 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04~2007)은 『시각적 사고: 미술의 인지심리학적 기초(1979)』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거나 무엇인가를 구상할 때 이미지의 형태로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3개의 그림 중에 “우리나라의 도시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은 몇 번일까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그린 그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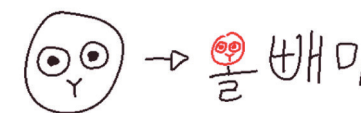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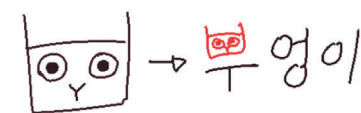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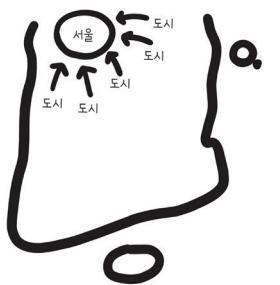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도시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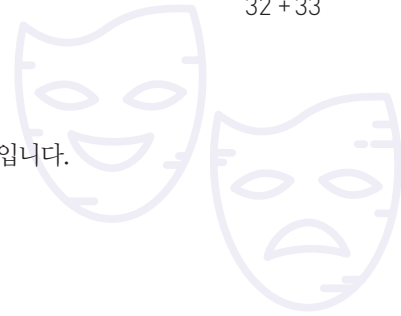
모두 잘 그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은 ‘수도권에 몰려있다’만 표현한 반면에, 3번은 수도권의 위치까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1, 2, 3번을 그린 친구들이 서로 그림을 설명하면서 옆의 그림과 같이 다시 그려왔습니다. 와~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네요.

비주얼씽킹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좀 더 내용을 전달하고, 그림 한 컷,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감대까지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린 ‘부영이와 올빼미의 차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특별한 미술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활용하면 훨씬 직관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연극,
들어보셨어요?

**상상의 힘을
밟자!**



● 김세왕 인천예송초등학교 교사

연극이 가진 상상의 힘을 수업에 적용해 볼까요?
어느 새 학생과 선생님은 이야기 속 인물이 되고 교실은 새로운 장소가 됩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통한 배움을 가져다 줍니다.
Learning by doing, 우리 함께 교육연극의 세계를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연극을 공부하고 실행하는 교사 김세왕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연극과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대학로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찾아가니 두 사람만 덩그러니 빈 공터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앉아서, 한 사람은 서서. 아마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런데 참 적절하게도 가로등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번개친다.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제 마음이 말했어요. ‘연극이 너무 하고싶다!’ 그래서 연극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짜릿한 ‘연극’의 경험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예술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는 ‘연극인’이 아니라 ‘교사’였고, ‘연극’보다 ‘교육’에 목적을 더 크게 두고 있었어요. 서울교대 대학원 ‘교육연극과’를 알게 되었고 대학원 과정을 밟았어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도 공부하면서 ‘교육’에 ‘연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극이란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히 말면 ‘연극’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예요. 또는 ‘연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배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크게 DIE(Drama In Education)¹⁾, TIE(Theatre In Education)²⁾로 구분하는데 시민연극(Applied theatre)³⁾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도 합니다. 꼭 드릴 말씀은 ‘연극교육’과 ‘교육연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철학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의 배움, 목적이 ‘교육’인지 ‘연극’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육연극을 하나요?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는 많은 가면과 내적 갈등을 적절히 풀어 ‘인물’로서 살아갑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간(페르소나⁴⁾)이 될 수 있지요.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나’로서 사는 것이고

- 1) 역할놀이, 역할극, 창의적 드라마 등 학생들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장면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공연을 함께 감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 속 교육연극을 말합니다.
- 2) 주제와 관련된 공연을 감상한 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직접 공연 속에 참여하여 상황을 바꾸어 보는 등 전문적인 연기자의 공연과 관객의 참여가 어우러진 교육연극을 말합니다.
- 3) 교육연극이 시민교육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DIE, TIE 구분을 넘어 연극을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분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 4) 페르소나(persona) 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본성과는 다른 태도나 성격.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내면화한 것.



그런 ‘나’의 모습이 합쳐지고 모여 ‘자아’, ‘삶’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이 곧 연극일까요?

‘간접경험’, 만약 가정된 상황 속에서 어떤 인물이 되어 직접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교육연극은 수업에서 학생을 ‘상상의 세계’ 속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교사의 구성력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적절하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조력자, 이끄는 등의 역할을 하지요.) 상상의 세계에서 학생은 이해력을 기르고 환경에 따른 결과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웁니다. 교육연극은 스스로 사는 힘을 길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교육연극은 ‘되어보기’를 통해 미처 몰랐던 내용을 내면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교육연극의 방법을 조금만 소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연극에서 사용하는 여러 방법을 드라마 관습(drama convention)이라고 합니다. 핫시팅, 빈의자 기법, 인물 관계도, 역할 속의 교사, 정지장면(타블로: Tableau), 마음의 소리, Role in the bag(가방 속의 역할), 과정드라마 등 다양한데



님은 왕도 되고 신하도 되고 진행자도 됩니다.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누군가는 부모로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만류하지요. ‘하필이면 내 자식이야 하느니’ 묻고 설득하며 전쟁 참가를 말합니다. 그럼 참가하겠다는 학생이 전쟁 안 하겠다고 태도를 바꾸기도 하지요. 적은 쳐들어 오고 대책은 안 서고 혼란한 가운데 거란족의 장군, 소손녕에게 편지가 옵니다. 편지를 함께 읽고 의논하며 대처 방법을 찾아보면 어느 사이 ‘서희의 외교담판’이라는 역사 속의 장면을 연극으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현재에 살지만 고려시대 누군가가 되어 역사 속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교육연극 수업에 함께 도전해 보시겠어요?

깨알 같은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의 힘을 믿자”, “해보자.”, “마치 ~처럼”, “나를 놓아 보자.” 일종의 최면이랄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법의 언어를 함께 말합니다. 진행이 잘 안되거나 쑥스러워 할 때에도 마법의 언어를 반복합니다. 아,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않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에는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함께 진행하는 약속에 바탕을 둔 활동이니까요. 매직1-2-3을 활용한 생활교육으로 평소에 학생 간, 교사-학생 간 관계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업이나 인생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울림의 정도가 수업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 모두를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각자는 경험과 지혜가 쌓인 살아있는 도서관이죠. 우리가 서로 가진 삶의 배움을 함께 나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뇌를 연결하는 ‘브레인넷’을 만들면 모르지만) 언제든지 저는 달려가 배우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인천예송초 교사 김세왕입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변화를 이끄는 힘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해 영광입니다.



‘상상’의 힘으로 교실을 새로운 장소로 만든다거나 학생이나 교사가 ‘인물’이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어떤 편지가 왔다고 할까요? 그 내용은 현재 마을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원이 됩니다. 이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물로서 갈등 상황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느끼도록 수업을 이끕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더 이상 교실 속 학생이 아닌 상황 속 인물이 되어 접근하지요. 다른 수업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온 그림을 보여주고 함께 장면을 만들어 봅니다. 인물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표현하게 합니다. 직접 해도 좋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다른 학생이 해줘도 됩니다. 미술 감상 수업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업에 직접 참여해 보면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공개수업에 한번 들러 주세요.

교육연극을 적용한 교육사례를 알려주세요.

저는 빈의자 기법을 많이 쓰는데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용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하는 사람이 우리반에 있다고 합니다. 빈의자가 텅그러니 놓여있고 힘들어 하는 누군가가 앉아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학생들은 왜 힘들어 했는지 상상하고 쪽지에 써서 고민함에 넣습니다. 선생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생들이 생각하

며 참여하도록 기다리지요. 고민함에서 나온 이야기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관계(따돌림), 언어폭력, 가정에서 갈등 등 4가지의 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둠을 나누고 제비뽑기로 선정한 고민의 상황을 장면으로 만들어 봅니다. 선생님이 직접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거나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실제적인, 들었거나 직접 겪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장면 속에서 고민하는 학생이 어떤 마음일지 공감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사회 역사수업에서는 고려시대 거란이 쳐들어 왔을 때를 교육연극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선생님은 왕이 되고 학생들은 신하가 되어 함께 정치를 합니다.(왕 역할도 학생에게 주고 싶었는데 진행 때문에 선생님이 함) 그러던 중 거란족이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듣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싸우자, 항복하자, 도망가자, 계락을 쓰자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당시 고려의 실제 상황을 아는 교사는 왕처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며 신하들이 제시한 방법이 적용 가능한지 의논합니다. 같이 싸우자는 신하에게는 직접 참여할 것인지를 묻고 그렇다고 할 경우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드리고 오도록 안내하지요. 학생 중 누군가 부모 역할을 대신 해 주어도 좋고 선생님이 역할을 맡아(역할 속의 교사) 참여해도 됩니다. 선생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청소년 노동상담

이로사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전문상담사

청소년노동인권상담을 단순히 체불임금 대신 받아주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권리구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상담이 여타의 상담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고자합니다.

청소년 노동상담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내담자 개인의 심리 내적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처참한 노동권 실태, 사업주의 노동인권 몰이해, 아무것도 모르고 일터에 내던져지는 청소년들의 고립적 상황,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화의 부재, 청소년의 권리주장을 버릇없음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 등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외부적)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진행하는 상담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사회적 여건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당사자의 책임분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노동인권 상담기법으로 대화를 통해 상처받은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촉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했던 적절한 정보를 알려주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서 코칭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코칭과 당사자의 의지가 결합되면 비로소 매몰찬 노동현장에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언어’가 생깁니다.

그 언어는 노동청 진정에 앞서 먼저 사업주에게 말을 꺼내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한 동료들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해결을 위한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이라는 공적 해결 이전에 스스로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과정을 겪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가만히 있던 채 누군가 대신나서 해결하는 것은 좋은 교육적 경험이 아닐뿐더러 인젠가는 오롯이 스스로 나서야 할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권리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먹기’가 어려워 주저했던 내담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알바면접 보는데 한 시간 일해보라 해서 했는데 시급을 안 주고 있어요. 8월 27일 하루 일을 했고 사장이 월급 주는 날짜가 9월 20일이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9월 28일 말을 하니까 사장이 넣어준다고 하고 안 넣어주고, 연락도 답장도 없어요.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가 문자로 남아 있기는 한데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싫고 그냥 돈만 받아주면 안되나요?”

내담자는 자신이 일한 곳이 고기집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업체에 전화라도 해보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업체 이름 전화 번호 등을 물어보니 내담자는 답을 하지 않고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도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부딪혀봐야 아는 부분이니까요.

내담자가 정보를 속 시원히 털어놓지 않고 눈치를 보며 뭔가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시급을 받고 싶지만 사장이 자신을 해코지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주민번호도 알고 있어 두렵다고 했습니다.

상담자가 다시 사장이 시급을 달라고 했다고 하여 해코지할 만큼 위험한 사람인지, 혹시 일하면서 위협이나 막말을 들어서 위축된 것 아닌지 의심되어 일하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조차 믿지 못하고 어른들이 자신을 해코지할까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예민하고 과도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두려움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손하게 정중하게 체불임금을 달라고 말해도 ‘감히 어른에게 따박따박’ 이라고 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차일피일 미루고, 어리다고 막말하고 무시하는 사업주를 마주하면 누구라도 이런 두려움이 듭니다. 이럴 때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며 무엇을 무기로 해결해야 할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초등부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과 대화로 권리를 확보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담은 곧 교육이고 교육이 상담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고받은 문자 캡처를 보면 사업주가 당신은 누구고 언제 어디서 몇 시간 일했냐고 묻고 있어요. 이것은 일한 사람을 기억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

“박*현이고 어디서 일했다고 해야겠죠...”
“그것을 문서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근로계약서예요. 1시간 일했으니 근로계약서를 쓸 틈이 없었겠지만 작성의 의무는 사업주에 있고 사업주가 쓰지 않았다면 본인이라도 일한 날짜와 시간, 누가 무슨 일을 시켰는지 적어두는 것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주는데 그렇게 망설이면서 사업주 정보는 왜 이렇게 적어요? 내가 가진 정보가 더 많아야 당하지 않아요. 사업주에게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주었으면 적어도 나도 사업장에 대한 정보 한두 가지 이상 갖고 있어야 하겠죠?” 라고 말하니 내담자는 그제서야 뭔가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내담자에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음을 격려하고 다음 번에 더 당차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눈 이 말을 내담자가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노동인권상담교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에 노동인권전문상담사를 배치합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따라 마련된 노동인권상담교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032)420-8264

📱 청소년노동인권 검색 후 친구추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김주옥 선학중학교 영양사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인천 선학중학교 가사실로 숨을
가쁘게 내쉬며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앞치마와 위생모를 착용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김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파와 갓을 다듬고 무를 세척하고 김치 속 재료를 썰고 무치며

손과 발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한 참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된 독거노인분들께
작은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영양사선생님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이 사람들은 학교급식을 끝내고 김장나눔 행사를 위해
모인 동부교육지원청 중등 영양사 선생님들입니다.
작년에 이어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
하고자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배
추와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여 저염·저당 김치를 정성
껏 만들어 남동구와 연수구 지역의 소외된 독거노인분
께 전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매년 김치를 기다리는 노인분들
은 많으신데 비하여 김치의 기부량이 적어 늘 걱정이
있는데 동부중등영양사회에서 기부를 해주셔서 고맙
다고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된 독거노인분들께 작은 행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영양사선생님들의 얼굴
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물질이든 경험이든 꿈이든
함께 나누면 함께 커진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



동부중등영양사회는 학교 영양사들의 전
문성과 식생활에 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모임입니다.
김장나누기 행사는 나눔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물질이든 경험이든 꿈이든 함께 나

누면 함께 커진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
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어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
다. 환한 미소를 머금고 김장나누기 행사
에 함께해주신 영양사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늘 잠재적으로 꿈꾸는 아
름다운 행복의 근원이 바로 나눔의 공동
체 속에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에서 몸과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뛰
고 있는 전국의 영양(교)사, 모든 선생님
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
습니다.

신나는 우리, 행복한 누리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유진희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기획연구과 교육연구사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 전인 발달, 교원 역량 신장,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 함께하는 유치원 문화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공사립유치원 4만 여명의 아이들이 '가고 싶다, 놀고 싶다'고 외치는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의 모습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첫째, 놀이 속에서 꿈을 키우는 유아 체험교육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는 단체체험과 토요가족 체험이 중심을 이룹니다.
실내체험에는 튼튼아이 우주로, 슬기아이 미래로, 나래 아이 세계로, 예술아이 놀이를 운영하며 실외체험은 산책놀이터, 나무놀이터, 잔디놀이터, 난타놀이터, 모험놀이터로 운영되고, 특히 인천 지역 문화특색(녹청자)을 살린 도예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원 연수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배움 UP! 만족 UP! 행복한 교사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직무연수, 맞춤형 연수,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교직핵심역량 직무연수와 유치원 교원의 역할 수행 능력을 지원하는 유아교육 중앙연수 등 현장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연수 운영으로 높은 연수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하며 나누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및 자녀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학부모 연수, 올바른 육아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교실, 유치원과 가정이 올바른 교육파트너로 함께 나아가는 학부모 동아리, 유아 발달 지연과 문제 행동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감하며 소통하는 유아교육지원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교원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과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유치원 평가, 교육자료실 운영, 학부모 홍보 리플렛 및 유아교육 소식지, 교수·학습자료, 업무도우미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에게는 신나는 놀이, 교원에게는 행복한 배움, 학부모와 는 즐거운 나눔'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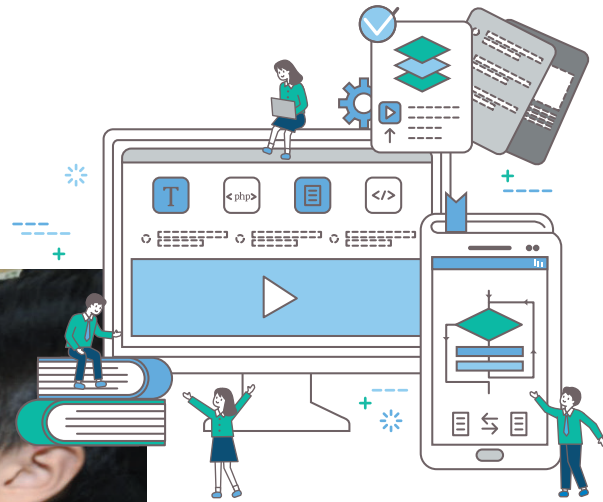


인천유아교육진흥원 메인 캐릭터 '우리, 누리'
자연을 상징하는 '우리'와 바다를 상징하는 '누리'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허브로서 인천을 나타내며,
유아들이 놀이로 성장해 가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천미래교육

조대영 명현중학교 교사



2016년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라디오 연설에서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In the new economy, computer science isn't an optional skill-it's a basic skill, right along with the three Rs.”

새로운 경제에서 컴퓨터 과학은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에 필요한 '읽기', '쓰기', '산수'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 지 3년째,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정보는 중학교 필수 교과가 됐고, “국영수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

면 지금 SW교육은 어디까지 왔으며 특히 인천은 SW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무미건조한 정책이나 행사를 배제하고 2년 동안 직접 체험한 것들을 위주로 인천의 SW교육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육지원청의 교과연구회와 다양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신규교사 연수 때 눈물로 정보 교과 의 존폐에 대해 호소하신 선생님 뒤의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교과연구회와 전문적학습공동체였다. SW교육에 관한 수업 내용과 활동부터, 평가 방법, 저작권 그리고 지금 대두되는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며 교류하고 있다.

둘째 교원의 SW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앞서 말한 여러 공동체가 구심점이 되어 피지컬 컴퓨팅 교구 활용 연수와 프로그래밍 언어 연수, 그리고 정보 교과 교수학습 방법과 타 교과와의 융합 수업에 관한 연수 등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부터 전문심화까지 연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연수를 수업, 동아리, 자기계발을 위해 얼마든지 손쉽게 들을 수 있다.

셋째 다채로운 SW관련 행사 마련이다. 학생들이 SW를 체험하고, SW교육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SW행사 역시 교육청 차원, 단위학교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된 교사·학생 해커톤에서는 학교라는 일상의 공간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SW를 통해 해결하려는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또한 많은 학생에게 SW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1회 로봇 코딩 캠프’를 명현중학교 외 4개교에서 연합하여 개최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2019년 한 해 동안 인천SW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SW미래채움 교육페스티벌’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어 학생, 교사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다방면의 기회들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의 삶속에서 SW의 가치와 필요성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SW교육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청,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SW학습역량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

재발굴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SW미래채움사업’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정보 교육 소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하여 SW기본교육과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SW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학생을 프로그래머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SW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인천의 미래교육, 특히 인천의 SW교육은 과도기를 겪으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또한 더 나은 SW교육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과 노력들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아이들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산하기관 현장 방문

글·사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 11월 기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방문,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선수단 격려

10월 4일(금)에는 제10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올림픽픽업도경기장을 방문하여, 인천 역도선수단 경기를 관람하고 고생한 선수들을 격려하였고 남은 경기에서도 선전을 다짐하였다.



2019.10.04.(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선수단 격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방문

10월 14일(월) ~ 15일(화) 기간에는 태풍 피해학교(갑룡초, 강남중, 백석고), 창의융합 과학실구축사업 학교(영선고, 사리울중), 학교 주변 재건축학교(산곡초)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10월 15일(화)에는 태풍 '링링'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갑룡초등학교와 강남중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피해복구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단 좌로부터
2019.10.14.(월) 영선고등학교 방문
2019.10.14.(월) 사리울중학교 방문
2019.10.15.(화) 갑룡초등학교 방문
2019.10.15.(화) 강남중학교 방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11월 5일(화) ~ 12월 13일(금)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11월 7일(목)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8일(금) 직속기관, 11월 11일(월) 교육지원청, 11월 12일(화) 인천시교육청 본청, 11월 13일(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요구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목) ~ 11월 27일(수)까지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12월 13일(금)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 되었다.



2019.11.07.(목) ~ 11.13.(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 인천교육



꿈을 그리다

웹툰 공모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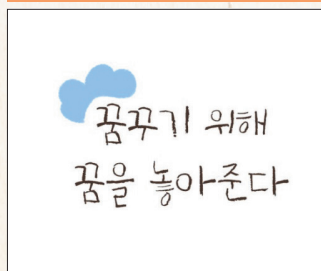


궁금한 미래의 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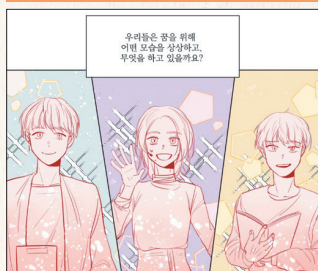
해원중학교 김지연

꿈을 위해 꿈을 놓아 준다



인화여자중학교 최시은

나의 미래, 우리들의 꿈으로부터!



인천예일고등학교 정혜교

꿈을 이루기 위한 나



만월중학교 허준서

공부의 제일 작은 첫걸음 - 꿈



삼산고등학교 김도현

X(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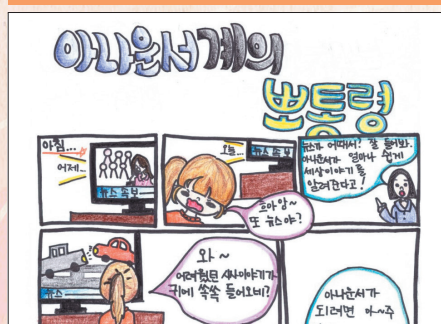
갈산중학교 김현휘

나의 꿈, 너의 꿈



마전중학교 김수빈

아나운서계의 뽕통령



인천경서초등학교 김다울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해송중학교 차명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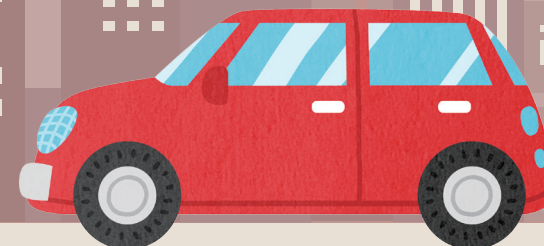
내 꿈은 헤어디자이너



인천당산초등학교 남지수

'19.12월부터 ~ '20.3월까지 학교 및 공공기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행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기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대상차량** 공공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비교

구 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기 간	고농도계절(12~3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충족 시
차 량 2 부 제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제 외 차 량	경차 및 친환경차, 유아동승 차량 등	친환경차, 유아동승 차량 등 ※ 경차 - 제외차량이 아님
공사장조치	-	운영 단축 및 조정



교육이
인천을
더 빛나게

인천광역시교육청